



KOGA 이규백 수석부회장 ...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수상
KOGA 최민환 사무차장... 대대표창 수상

한국봉제신문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99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2026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신년인사회’ 열려

윤순구 대사 “동포들의 자부심 되는 모국...
실질적 조력과 섬김의 공간 만들 것”
김종헌 한인회장, “적토마의 기운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안전·차세대·소통의 든든한 울타리”



▲2026년 신년인사회, 기관장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사진=한인뉴스)

2026년 새해를 맞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1월 7일, 한인동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윤순구 신임 대사와 김종헌 한인회장을 비롯해 한인사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윤순구 대사의 신년사, 김종헌 한인회장의 인사말, 표창 전수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윤순구 신임 대사는 신년 축사에서, “해외에 나와 사는 동포들을 뵈 때마다 모국인 대한민국이 단단해야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모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간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섬기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상식과 관련해 “동료들이 인정해 준 상이라는 점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의 상은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지고 중요하다”며 깊은 축하를 전했다.

김종헌 한인회장은 적토마(赤兎馬)의 기운을 담은 힘찬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김 회장은 “지혜와 기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낸 한인 사회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며 2026년 한인회의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비상 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보호받는 한인 사회, 정체성 교육과 지원을 통한 차세대가 꿈을 꾸는 미래 지향적 한인 사회, 다양한 교류

와 민간 외교를 통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열린 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표창장 전수 및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윤순구 대사는 제 19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을 이규백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직접 전달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총 46명에 대한 대사 표창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고 안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인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수상을 축하합니다

KOGA 이규백 수석부회장 ...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수상 최민환 차장... 대사표창 수상



▲이규백 수석부회장



▲최민환 사무차장

지난 27일 대사관 1층에서 열린 신년 하례식에서 KOGA 이규백 수석부회장이 국무총리표창과 대사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규백 수석부회장은 오랫동안 KOGA의 발전과 인도네시아 봉제 산업에서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과 대사표창을 동시에 받았다.

더불어 늘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KOGA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민환 차장도 금번 대사표창을 수상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2026년 KOGA 정기총회 열려



지난 23일 자카르타 한옥 레스토랑에서 2026년 코가 정기총회가 열렸다. KOGA 회장단과 상임사. 사무국이 함께 자리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25년 KOGA 운영과 재무보고가 있었고 2026년 새로운 계획과 예산을 결정확정을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되었던 코가 연회비 인상과 관련한 회칙 개정이 있었다. KOGA는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연회비 인상없이 운영해 왔으나

협회 건립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높아져 신중한 논의를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반 회원사와 회장단의 연회비를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연회비 인상에 협조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후 더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KOGA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편집부]

코참, '제7대 출범식 및 2026 상공인의 날' 성료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이하 코참)는 지난 1월 21일(수), 자카르타 다마이 인다 골프(Damai Indah Golf) PIK에서 '제7대 출범식 및 2026 상공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7대 코참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에 기여해 온 회원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한인 경제인 및 코참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범식에서는 제7대 코참 회장단 및 사무국 소개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가 공유됐다. 이강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제6대 임기 동안 대기업 회원 유지 확대, 정관 개정, 한국 공공기관의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조직의 기반을 다졌으며, 회원사의 목소리를 정부·대사·유관기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7대 코참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 '팀 코리아 (Team Korea)' 협력 체계 강화 ▲ 회원 간 네트워크 확대 ▲ 아세안 및 글로벌 연계 강화 ▲ 인도네시아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대사관, 코트라,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 간담회 및 규제 개선 논의를 정례화해 기업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7대 코참 출범식 및 2026 상공인의 날 (사진=코참)

아울러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코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카르타한국학교, 현지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총 3개 기관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 회장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코참이 회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 나선 강원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참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나아가 '팀 코리아. 인도네시아'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7대 코참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또한 김종현 한인회장은 코참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원 기업의 권익 보호, 네트워킹 강화,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

다. 이어 한인회 역시 코참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성숙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참은 제7대 출범을 계기로 회원 중심의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자카르타경제신문]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기술 OK 신뢰 OK 안전 OK



인니 정부, 60억 달러 투입해 국영섬유회사 추진...업계 “민간 투자 위축” 우려



▲중부자카르타 떠나이방 시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 섬유 회사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섬유 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 하나로,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섬유·필라멘트사 생산자협회(APSyFI)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파 회장은 20일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60억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업계가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해당 국영회사가 파산한 대형 섬유업체 스리텍스(PT Sri Rejeki Isman, Sritex)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영회사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무역 정책 개선,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인허가 투명성 등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마 회장은 “스리텍스를 살리는 데만 최소 8조 루피아(약 4억7,2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60억 달러는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경우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텍스는 한때 동남아 최대 규모의 종합 섬유업체 중 하나였으나, 2024년 10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1~2월에만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됐다. 이에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설비 임대, 신규 투자자 유치, 다른 기업으로의 인력 흡수 방안 등 해고 노동자 재고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뿌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19일 “새로 설립될 국영 섬유회사는 스리텍스 사태를 포함해 의류·섬유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뿌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서부자바 합발랑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를 통해 60억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식화했다.

뿌라스띠오는 19일 기자들에게 “스리텍스는 약 1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필요시 정부가 섬유 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산업부 장관도 스리텍스 청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리텍스가 청산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로운 소유 구조를 통해 회생할 수 있다면 그 편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국영 섬유회사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경제조정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글로벌 무역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며, 섬유 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와 투자 지속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영 섬유회사 설립이 향후 10년간 연간 섬유 수출액을 4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 로드맵의 일부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섬유·의류 산업은 2024년 기준 11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주요 비석유가스 수출 산업이다.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높은 수입 관세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다. 인도네시아가 의류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국영기업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신타 깎다니 회장은 20일, “섬유 국영기업 설립은 가치사슬 전반의 업계 참여를 전제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시장 참여자로 나설 경우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영기업이 낮은 자금 조달 비용과 정책적 우대를 받는 구조적 이점을 지닌 만큼, 적절한 협력 설계가 없다면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빠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안또 사미린 역시 정부가 스리텍스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일, “아직 영업

중이지만 투자와 운영 강화가 필요한 기업들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60억 달러는 막대한 금액이며,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국가 개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간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직접 진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섬유·의류 산업은 약 396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전체 고용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당 산업은 2025년 1~9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97%를 차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수입 면직물에 긴급관세 부과...한인 봉제업계 원가 부담 가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면직물에 긴급수입제한조치(BMTP)를 시행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봉제업계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0일부터 2029년 1월 9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수입 면직물 16개 품목에 대해 미터당 최대 3,300루피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등에서 원단을 수입해 가공하는 구조의

한인 봉제 하청업체들은 생산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는 원가 상승 압박이 크고, 품질이 낮은 현지 원단 사용 시 바이어 클레임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공임 인상 요구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BMTP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정책 변화와 무역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처 : 세계한인신문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 Air Cargo
- Sea Cargo
- Warehouse
-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유지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월 13일자에 게재된 만디리은행의 산업 및 지역 분석가 Amiadji Nur Kamil의 의견입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은 인도네시아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근로자가 생산하는 산출물의 가치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기업은 노동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확장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반대로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보다 낮을 경우, 경쟁력이 하락하고 기업의 확장 및 투자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별 최저임금(UMP)은 근로자 임금 체계의 주요 기준 역할을 한다. 올해 최저임금(UMP) 인상률은 2025년 대비 평균 5%~7%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노동 생산성 증가와 일치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연간 증가율은 동기간 근로자당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최저임금은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기준 16.1% 증가한 반면,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2.4% 증가에 그쳐 임금보다 크게 뒤처



▲eMOA 전기오토바이 제조 현장 (사진=PT.Baterai Listrik Motorind)

졌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동일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같은 기간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연평균 5.8% 증가하여 1%에 그친 임금 증가율을 상회했다. 반면, 베트남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연평균 5.5% 증가했으나, 임금 증가율 6.2%보다 낮은 수치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조업 부문은 고용 흡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문은 대규모 노동력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가치 창출 및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 정책은 제조업 부문의 상황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적 역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총비용 구조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제조업은 인건비 비중이 작은 산업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업통계에 따르면 가죽·신발 산업이 총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의류 산업(28.7%), 기타 제조업(25.7%), 가구(25.6%), 기계 수리 및 설치 서비스(23.6%) 순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지난 20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1.2% 증가에 그친 반면, 임금은 연평균 7.6%라는 상당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 통계를 기반으로 제조업 하위 부문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2018-2023년 기간 동안 금속 가공 제품 산업(기계류 제외)이 연간 9.5%의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8.2%의 임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다른 산업으로는 음료 산업(5.3%)과 섬유 산업(5.3%)이 있다. 그러나 두 하위 산업 모두 임금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8.4%와 8.1%로 더 높았다.

반면, 전기 장비(-17.7%), 기

계(-9.5%), 제지(-9.5%), 가죽 및 신발(-8.9%) 등 여러 전략적 산업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반면 임금 상승률은 양의 수치를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산업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한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발전, 인력 역량 개발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서 핵심 요소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과 효과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첫째,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및 훈련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직업 교육과 전문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최신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역량 인증 프로그램 또한 근로자의 기술을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자동화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최신 기술, 자동화 기계 및 디지털화된 생산 시스템의 활용은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며 생산 공정을 가속화하여 근로자당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 도입은 아직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영 관행, 작업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개선은 낭비를 줄이고 업무 흐름을 간소화하며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산업계와 정부 간의 강력하고 일관된 협력 역시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다.

재정 정책, 투자 인센티브 및 산업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과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은 제조업 부문이 최신 기술과 모범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술 역량 강화, 기술 도입, 경영 개선, 산업계와 정부 간의 강력한 협력을 결합한 전략을 통해 국가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근로자 소득과 전반적인 복지 향상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인도네시아, 면직물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도입... 이달 10일부터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가 면직물 수입 급증에 대응해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도입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7일 전했다. 지난 12월 22일 뿌르바야 유디 사태와 재무장관이 서명한 재무부령 제98호/2025를 통해 직조 면직물(woven cotton fabrics)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해당 관세는 1월 1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수입 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1995년 발효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로,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세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무역안보위원회(KPPI)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KPPI는 면직물 수입이 급증해 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8자리 HS코드로 분류된 16개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 원단 1미터당 2,900루피아에서 3,300루피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세이프가드 관세는 기존의 일반 수입관세와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다만 재무부는 WTO에서 ‘신흥 회원국’으로 분류된 122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면제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중국과 인도, 베트남은 면제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KPPI의 조사는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공식 요청에 따라 2023년 말 시작됐다. 초기 조사 대상은 면직물뿐 아니라 인조 필라멘트사, 면 봉제사, 면사, 인조 필라멘트사 직물 등으로 확대됐다. 통계청(BPS)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수입량은 2019년 1만4,843톤에서 2023년 2만

9,908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조사는 WTO 세이프가드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 보호 조치가 권고될 수 있다. KPPI는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제안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주요 섬유 생산국들이 축소된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면서, 저가 수입 의류와 원단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섬유협회(API)는 지난해 말 정부에 미국과의 무역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의류·섬유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I는 고용 집약적인 섬유산업에 부과되는 관세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요구는 아이르방가 하르파르토 경제조정장관이 인도네시아 대미 수출품 중 광물과 팜유 같은 열대 천연자원 상품에 한해 관세가 면제되며, 의류 및 섬유를 포함한 제조품은 19%의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에 몰리는 ‘차세대 섬유’ 투자... 탈탄소화 지형 바꾸나



▲캐노피가 다보스 회의에서 인도의 탈탄소화를 위한 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캐노피, 다보스 포럼서 150만 톤 생산능력 구축 계획 밝혀 글로벌 비영리 단체 캐노피(Canopy)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에서 인도 ‘차세대(Next Gen)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혼합금융(Blended Finance)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 부산물과 재활용 섬유를 원료로 하는 차세대 소재 생산 역량을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구축해, 섬유·패션 공급망의 탄소를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패션 산업에서 ‘차세대 소재’는 흔히 재생 폴리에스터, 바이오 기반 합성섬유, 혹은 균사체·랩그로운 소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캐노피가 이번에 전면에 내세운 축은 비목재(non wood) 기반 셀룰로오스 원료, 즉 농업 부산물과 섬유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원료 전환이다. 캐노피는 비스코스·라이오셀·모달 등 인조 셀룰로오스 섬유 공급망을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규정하고, 목재 중심의 원료 체계를 대체하는 산업 기반을 인도에서 대규모

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인조 셀룰로오스 섬유는 ‘천연 유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료가 되는 펄프가 산림에 기대고 있는 한 생물다양성·산림 훼손·탄소 배출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인도를 ‘차세대 섬유 산업의 제조 허브’로 지목한 배경에는 자원 조건이 있다. 인도에서는 매년 농업 잔재 약 5억 톤, 섬유 폐기물 약 800만 톤이 발생한다. 이 중 상당량이 소각되며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로 연결된다. 캐노피는 차세대 소재가 톤당 약 4톤 CO₂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노피는 공공·자연·임팩트 자본과 민간 자본을 혼합한 ‘블렌디드 파이낸스’ 방식으로 초기 시장의 리스크를 낮추고 대규모 상업자본을 끌어들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1000만 톤 규모로 확장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도 차세대 소재 산업 전체에는 130억~150억 달러 규모의 총 투자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2026 재인도네시아 교민 배드민턴 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2026 재인도네시아 교민 배드민턴 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 (사진=재인도네시아 배드민턴협회)

재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의 화합과 건강한 교류를 도모하는 「2026 재인도네시아 교민 배드민턴 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월 16일, 땅그랑 슬라탄에 위치한 No Look Badminton 경기장 (Living World Alam Sutera)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교민 배드민턴 동호인 및 가족, 외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배드민턴 대회를 통한 친목 도모는 물론, 협회를 이끌어 온 전임 회장에 대한 감사와 새롭게 협회를 이끌어갈 신입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창립 이래 지난 3년간 협회의 기틀을 다지고 교민 화합에 기여한 전임 회장(김종희 회장)에게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가 전달되는 순서가 마련되었고, 바통을 이어 받은 신입 회장(최태립 회장)은 취임사에서 “배드민턴을 통해 교민 사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

도록 소통과 참여 중심의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목별 배드민턴 경기에서는 열띤 경쟁과 함께 클럽별 출전선수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히 겨루는 경합이 벌어졌으며, 스포츠맨십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스포츠 축제가 펼쳐졌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교민 사회의 결속과 세대 간 화합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한 교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 대회는 교민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재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인도네시아배드민턴협회/ 자카르타경제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2026년도 세금 수입 목표



▲(DDTC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도 세수 목표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PPN & PPhBM)와 기타 세원(Pajak Lainnya)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확대를 국내 소비 회복과 수출입 활동 증가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며, 세무 행정 강화와 납세자 서비스 개선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인상 없이 부가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납세자 입장에서 다소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없이 부가세 세수가 급증하는 경

우, 부가세 환급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향후 부가세 환급 지연이나 추가 소명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면 **법인·개인소득세(PPh)**의 경우, 세목별로는 일부 증감 차이가 있으나 전체 규모 자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SP2DK 통지 및 세무조사(Pemeriksaan Pajak)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세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세무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역시 올해는 전년

단위 : 조루피아

세목	2025년 실적	2026년 목표	증가액	증가율(%)
소득세 (PPh)	1.209.38	1.209.36	-0.02	0%
부가세 (PPN & PPhBM)	790.27	995.27	205	26%
관세 (내수-주세,담배세등)	225.73	243.53	17.8	8%
재산세 (PBB)	26.13	26.13	0	0%
관세(수출입)	49.90	49.90	0	0%
기타	77.90	126.93	49.03	63%
세수 합계	2.217.90	2.693.70	475.8	21%



김재훈 대표

도 실적과 유사한 수준에서 소득세 세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년 세수 구조를 보면, 소득세(법인·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약 44.90%, **부가가치세가 약 36.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세목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정 운영 방향은 결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납세자 입장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세무조사, 환급 심사, 사후 검증 등 모든 세정 리스크가 이 두 세목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과 개인 납세자 모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한국계 봉제업체 판코비나, 베트남서 23년 만에 폐업...8000명 실직 충격

내년 2월 공장 가동 중단...연말 보너스·퇴직금 지급 쟁점
코로나 이후 원가 급등·주문 급감...베트남 제조업 외국인투자 이탈 경고등

100% 한국 자본 봉제업체 판코비나가 23년간 이어온 베트남 사업을 2026년 2월 1일 전면 중단한다. 사진=비엠티파이낸스

100% 한국 자본 봉제업체 판코비나가 23년간 이어온 베트남 사업을 2026년 2월 1일 전면 중단한다. 베트남 경제 매체 비엠티파이낸스(vietnamfinance.vn)는 판코비나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전 직원에게 생산 및 사업 활동 종료료를 통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한때 8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베트남 남부 섬유 수출 산업 주축을 담당했던 이 기업의 철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원가 급등, 수출 급감이 빚은 직격탄으로 풀이된다.

23년 역사 마감...한때 1만 명 고용 주력 기업

판코비나는 1984년 설립된 한국 섬유 전문기업 판코의 100% 자회사로, 2000년대 초 베트남 빈증성(현 호치민시) 미퓌1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웠다. 전성기에는 의류 노동자, 기술자, 경영진 등 6000~1만 명을 고용하며 동남아시아 한국 기업 진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완비된 기숙사와 복지 시설로 근무 환경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판코 그룹은 한국, 중국,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섬유, 염색, 원자재 생산 분야 사업을 전



▲100% 한국 자본 봉제업체 판코비나가 23년간 이어온 베트남 사업을 2026년 2월 1일 전면 중단한다. 사진=비엠티파이낸스

개해 왔다. 호치민 외에도 다낭 인근 팜남성 탐랑 산업단지 7000만 달러(약 1013억원) 규모로 새 섬유 센터를 추진했으나, 이번 철수로 베트남 시장 전체에서 퇴출된다. 회사 측은 지난 23일 내부 공지를 통해 “생산과 사업 활동 지속에 어려움이 커졌고,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판코비나는 오는 1월 31일까지 남은 생산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 보상, 사회보험 등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지 노동조합에 따르면 1년 근무 직원들이 받는 연말 보너스(13월차 급여) 지급 여

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 응우옌 킴 룬 부위원장은 “해당 기관이 지방 당국과 협력해 실직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캠프 이구와 인근 섬유·제조 업체 일자리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물류 부담에 수출 급감...저가 경쟁국 대두

판코비나 철수의 직접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한 경영 환경으로 풀이된다. 2020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 소비자 수요가 급감했고, 생산·인건비·물류 비용은 급등했다. 수출 주문에 의존하는 섬유·의류 산업은 세계 경제 변동에 특히 민감한 분야다.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약 60억 달러(약 8조 6800억 원) 규모로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다. 주요 투자 지역은 동나이, 빈증, 롱안 등 호치민 인근 산업단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인건비가 연평균 5~7% 상승하면서 저비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저가 경쟁국으로 주문이 이동하고, 친환경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 압박이 전통 제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2024년 베트남 섬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370억 달러(약 53조 5700억 원)를 기록했지만, 수출 단가는 오르지 않아 실속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제조업 장기 외국인투자 이탈 경고등...구조 전환 시급

전문가들은 장기 FDI 기업의 시장 철수가 개별 기업 어려움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 압력 증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인건비 상승과 친환경 전환, 저비용 국가로의 주문 이전 등이 전통 제조업에 복합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판코비나가 직원 의무 이행을 약속한 점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호치민시 당국과 노동조합도 노동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 복지 충격 최소화해 나갔다.

판코비나 철수는 한때 동남아 생산 기지로 각광받던 베트남에서 23년간 이어온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베트남 제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단순히 저가 생산을 넘어 기술 고도화와 현지화를 제고 등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전국 무료 건강검진 결과, 국민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포스트 26일 보도에 따르면, 비만과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이 전 연령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



면서, 보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7천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억 명의 약 70% 수준이다. 검진 결과, 성인 3,100만 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비만으로 분류됐으며, 약 700만 명이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상태도 우려스럽다. 7~17세 연령대 가운데 약 200만 명이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100만 명이 이상이 비만 상태였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양실조 문제가 주요 건강 이슈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감염병 중

심 사회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당국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질환이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단순 검진을 넘어 치료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방암 등 주요 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최대 15일간 무료 치료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BPJS)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약 처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조기 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고론탈로와 남술라웨시

등 일부 지역은 검진 참여율이 40~50%에 달했지만, 파푸아 고원·서파푸아·중앙파푸아 등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 인프라 부족과 보건소 접근성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검진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는 "몸이 건강하다고 느껴서", "시간이 부족해서", "무료 검진 제도를 몰라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이 정책을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만성질환 악화를 막아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그리피스대학의 찬드라 요가 아디파마 교

수는 "전국적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오지 지역까지 포괄하는 보건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검진 대상자를 1억3,6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이 실제 국민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몇 년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건강검진으로 드러난 인도네시아인 건강 실태

비만 · 고혈압 확산... "조기 개입 없으면 의료 부담 가중"

아디다스골프, SS26 오리지널스 골프 컬렉션 선보여

아디다스골프가 SS26 시즌을 맞아 오리지널스 골프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해 첫 선을 보임과 동시에 골퍼들에게 높은 관심을 모은 오리지널스 골프 컬렉션이 이번 시즌 한층 더 새롭고 선명하게 재해석되어 돌아왔다.

아디다스골프는 SS26 오리지널스 골프 컬렉션에 대해 "현대적인 스트리트 감각을 더해 골프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 스타일과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골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골프 스타일



▲아디다스골프 SS26 오리지널스 골프(사진:아디다스골프)

에 문화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며 "특히 이번 컬렉션은 미드 센추리 감성과 모던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아 선명한 컬러

와 엄선된 소재 그리고 필드 안팎을 아우르는 실루엣으로 페어웨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숙면의 기준 바뀐다... 침구 소비, 초개인화가 이끈다” 개인별 맞춤형 수면 솔루션으로 진화



▲2026년 수면 트렌드 발표 중에서, 사진=이브자리

2026년 침구 소비 트렌드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초개인화’를 제시해 주목된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적극적인 자기관리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침구 역시 개인의 수면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슬립맥싱(Sleepmaxxing)’ 트렌드가 확산되며 숙면에 대한 관심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잘 자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침구 소비에서도 ‘나에게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구현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26년 침구 시장의 중심 키워드로 ‘M.A.X.X.’를 제시하고, 그 출발점으로 초개인화(My sleep)를 꼽았다. 수면 데이터와 AI 기반 슬립테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

인별 체형, 수면 습관, 온·습도 민감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침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침구 산업 전반에서도 표준화된 제품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면 조건에 맞춘 설계와 조합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브자리는 AI 추천 로직을 기반으로 베개, 토피, 이불 속통을 개인별로 조합한 맞춤형 수면 패키지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초개인화 트렌드는 수면 효율 강화와 고객 경험 확장으로 이어진다. 체온 조절, 자세 안정, 촉감 만족도를 고려한 기능성 침구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체험 중심의 구매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침구를 소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역시 개인화된 소비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소재, 윤리적 생산, 리사이클 시스템 등 ESG 가치를 고려한 침구 선택이 확산되며, ‘나에게 맞는 수면’과 ‘지속 가능한 선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조은자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소장은 “집중력과 생산성에 직결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잠을 이제는 웰니스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개인의 수면 특성에 맞춘 지속적인 수면 관리는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고, 침구 소비 역시 숙면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KOREA 360’ 인도네시아 달군 K-브랜드, 115억 원 수출 상담 래거 236건 상담, 15.6억 원 현장 계약 체결 연계 마케팅으로 B2C 매출도 꺾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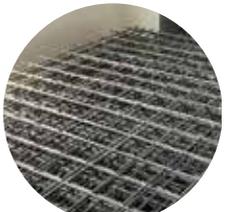
▲KOREA 360 우수브랜드 현지화지원 사업 ‘판촉전’ 현장사진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국내 우수 브랜드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자카르타 현지 관계 부처 해외 홍보관(KOREA 360)에서 개최한 ‘2025 KOREA 360 우수 브랜드 현지화 지원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업은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K-브랜드 판촉전과 ▲K-팝 콘서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했고, K-컬처의 파급력을 소비재 수출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17일부터 5일간 롯데몰 자카르타에서 열린 판촉전에는 콘텐츠, 리빙, 푸드, 뷰티 등 4개 분야의 우수 브랜드가 참여했고, 현지 주요 바이어 67개사와 심도 있는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236건의 상담과 약 779만 달러(한화 약 114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액을 기록했다. 현장 계약 체결액 또한 106만 달러(한화 약 15.6억 원)에 달했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공연 티켓 연계 프로모션, 브랜드 부스

체험 이벤트, 현장 팝업 스토어 운영 등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한 직접 판매 매출은 약 11억 루피아(한화 약 9,500만 원)에 달했으며, 행사 연계 간접 매출 규모는 약 184억 루피아(한화 약 1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17일 자카르타 NICE(누산타라 국제 컨벤션)에서 열린 ‘HUG Concert’에는 민호, 하이라이트 등 국내 정상급 가수와 인도네시아 아티스트가 참여해 4천 3백여 명의 현지 팬들을 열광시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이지환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간 협력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이며, K-콘텐츠의 매력을 K-브랜드의 실제 매출로 연결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해외홍보관(KOREA 360)을 거점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인니 관광업계, 최대 명절 르바란 특수 비관적 전망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업계가 이슬람 라마단(금식월) 종료 후 이어지는 최대 명절 르바란(또는 이돌피트리) 기간 특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관광업계는 작년 연말 성수기 특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가게 구매력 약화와 높은 교통비 부담이 오는 3월 르바란 연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PHRI)는 최근 호텔 객실 점유율 하락, 평균 숙박 기간 단축, 지역별 방문객 분포 불균형 등의 지표가 관광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통계상 전체 이동량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1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PHRI 사무총장 마울라나 '알란' 유스란은 "2025년 한 해를 놓고 보면 2024년에 비해 객실 점유율이 전혀 늘지 않았으



▲발리 올루와뚜 사원에서 바라본 절벽 [자료사진=데일리인도네시아]

며, 오히려 약 4% 감소했다"며 "현재 상황은 코로나19가 막 끝나고 시장이 회복되던 2022년과 거의 비슷하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의 압박은 2024년과 2023년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알란 사무총장은 평균 숙박 기간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최소 5~6일 체류가 일반적이었고, 점유율도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평균 2~3일에 그치고 있다"며 "원래라면 성수기로 분류돼야 할 시기

인데, 실제로는 평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PHRI는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가게 소비 여력 약화를 지목했다. 여행객들이 체류 기간과 지출을 동시에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입국자 수 증가만으로 관광 회복을 판단하는 데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약 680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발리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란 사무총장은 "불법 숙박시설 증가와 입국자 수가 곧바로 호텔 투숙률을 의미한다는 오해가 문제"라며 "실제로 발리에 머무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경

유객이 많을수록 체류 기간과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자바섬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족자카르타와 반둥 등 주요 도시의 경우에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반짝 수요만 나타난 뒤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PHRI는 이러한 흐름이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 수요를 자바 외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을 경우, 관광산업의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토템', 2026 S/S 컬렉션 '미니멀리즘의 재해석'



스웨덴 프리미엄 브랜드 '토템(TOTEME)'이 2026봄·여름(SS26)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간결한 실루엣과 절제된 디테일을 중심으로,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의 아이템들로 구성됐다. SS26 컬렉션은 몸에 과도하게



밀착되지 않는 실루엣과 깔끔한 형태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크링클드 코튼과 린넨, 실크, 니트 등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으며,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컬렉션 전반에 적용됐다. 컬러는 옅은 핑크와 딥 그린을 더

해 차분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이번 시즌에는 토템을 대표하는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한 스타일링이 눈에 띈다. 니트 탱크 톱에 스커트 또는 트라우저를 매치한 스타일을 비롯해, 크링클 텍스처의 슬립 드레스와 구조적인 코트, 컴팩트한 니트 아이템이 시즌의 분위기를 완성한다. 가방과 슈즈 라인 역시 간결한 형태와 소재에 집중했다. 새로운 탑 핸들 백 '클립(Clip)'을 비롯해 구조를 단순화한 토트백이 포함되며, 슈즈는 새틴과 페이턴트 레더, 바케타 레더 소재를 활용해 깔끔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주얼리와 액세서리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전체 스타일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사잇소리의 종류

초성 [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 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즉 반드시 초성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여야 한다.
숨-이불[숨: 니불]
맨-입[맨입]
남존-여비[남존녀비]
늑막-염[늑망염]
영업-옹[영업옹]
홀-이불[홀니불]
꽃-잎[꽃닙]
산-여성[산녀성]
콩-엿[콩]
식용-유[시 뉴]



막-일[망닐]
내복-약[내: 봉낙]
색-연필[생년필]
담-요[담: 뇨]
국민-윤리[국민닐리]
삿-일[상닐]
한-여름[한녀름]
직행-열차[지강닐차]
눈-요기[눈뇨기]
밤-뿔[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주요브랜드 2026 광고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샤넬, 제니와 함께한 '숨바꼭질 캠페인'
샤넬의 파인 주얼리 컬렉션 코코 크러쉬 (COCO CRUSH)가 2026년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에는 코코 크러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진화한 형태의 쇼트 네크리스, 초커, 링 등 새로운 디자인의 주얼리 피스들이 새롭게 선보이며, 컬렉션의 표현 영역을 확장했다. 모든 만남이 남기는 기억의 흔적을 경쾌한 리듬과 감각적인 시선으로 드러낸다.



티파니앤코, 사랑의 여정을 함께한 하우스의 유산
189년의 역사 하이 주얼리 티파니(Tiffany & Co.)가 두 영혼의 사랑과 내면의 강인함을 영화적 무드로 담아낸 '2026 밸런타인데이 캠페인'을 선보인다. 캠페인 속 앰버서더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티파니의 상징적인 '티파니 하드웨어 (HardWear)' 컬렉션을 착용해 내면의 힘과 우아함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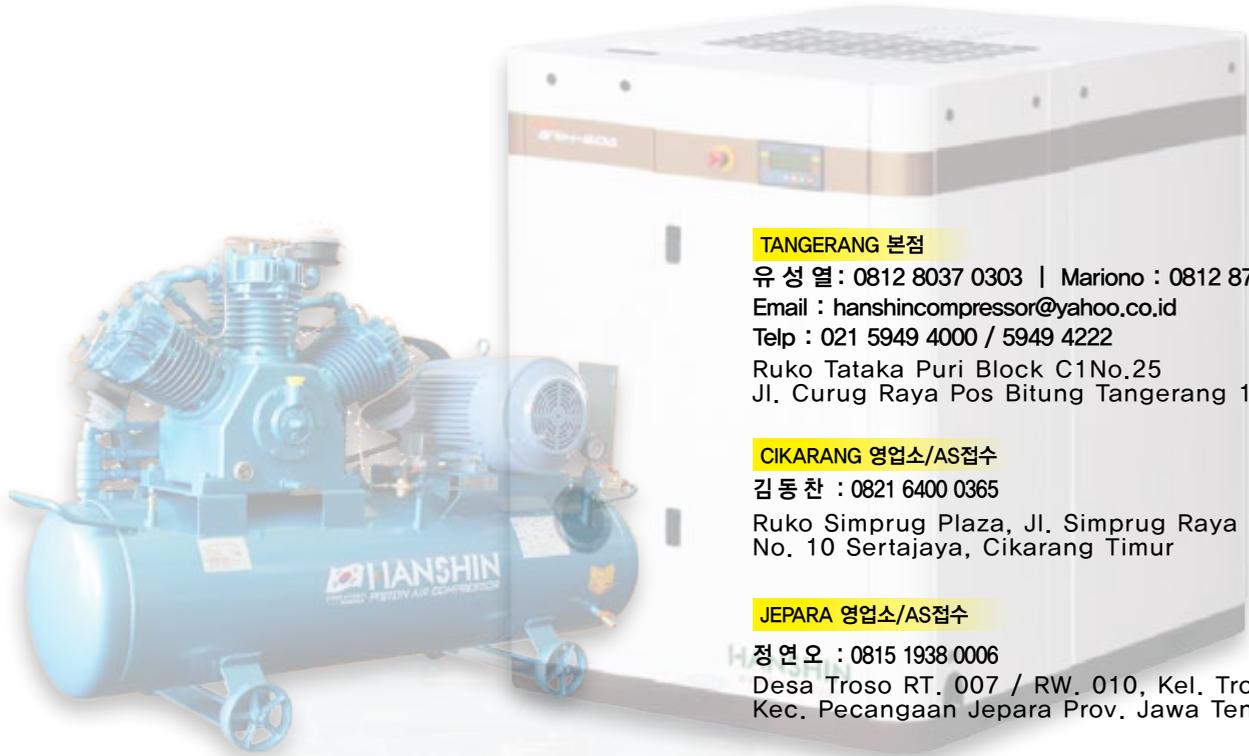
로로피아나, 생폴드방스의 온기를 담은 캠페인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2026 S/S 캠페인이 공개됐다. 포토그래퍼 마리오 소렌티가 촬영한 이번 캠페인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생폴드방스를 배경으로 했다. 부드럽고 유연한 실루엣과 생동감 있는 컬러, 풍부한 소재감이 특징인 이번 시즌은 돌 벽과 타일, 지중해 풍경을 담은 창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찰스앤키스,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
글로벌 패션 브랜드 찰스앤키스 (CHARLES & KEITH)가 자연의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리듬을 담아낸 2026 봄 시즌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 캠페인은 재생과 유연함, 그리고 진화하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씨앗이 깨어나 빛을 향해 자라나고 마침내 만개하기까지의 여정을 구조적인 형태의 강인함과 부드러운 감성으로 풀어낸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